

## 룡왕의 막내공주

옛날 동해바다 어느 섬마을에 수동이라는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 가는 수동이는 남달리 어머니를 사랑했다.

마른일, 굶은일을 다 맡아 했지만 아직 한번도 어머니의 말을 어겨 본 일이 없는 수동이였다.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나무를 해오고 미역을 뜯어 오고 물에 나가 쌀을 사왔다.

동네어른들은 수동이를 마을에서 보기 드문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총각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동이가 것처럼 사랑하던 어머니는 어느 날 몹쓸 병에 걸려 자리를 펴고 누워 버렸다. 밤낮으로 뛰어 다니며 졸다는 약은 다 구해다 써보았으나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해 나중에는 죽 한술도 변변히 들지 못했다.

수동이는 너무나 속이 타서 입술이 다 말라 들고 눈이 폭 꺼져 들어 갔다.

《어머니, 자시고 싶은것이 없어요? 있으면 어서 말씀하 세요.》

《먹고 싶은것이 별로 없구나, 정어리나 구워 놓으면 밥이 좀 넘어 가겠는지?》

어머니는 이러며 쿨럭쿨럭 기침을 하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잠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 인차 바다에 나가 잡아 오겠어요.》

수동이는 그길로 그물을 메고 바다로 나갔다.

고기배가 매여 있는 나루를 향해 걸어 가던 수동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뜻밖에도 웬 어여쁜 처녀가 너럭바위우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이 외로운 섬에 웬 처녀가 저렇게 누워 있을까?)

수동이는 처녀곁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잠들었던 처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 나 앉았다.

키가 구척 같은 총각이 앞에 서 있는것을 보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다소곳이 머리를 숙였다. 초롱초롱한 눈이며 날아 날듯 한 몸매, 값진 옷...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는 난생 처음 보았다.

수동이는 처녀에게 물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데 사는 아가씨기에 이렇게 외로운 섬에 와서 누워 있습니까?》

처녀는 그때야 얼굴을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섬에서 멀리 떨어 진 곳에 산답니다. 너무도 갑갑해서 섬구경을 왔다가 그만 깜박 잠들었나봐요. 당신은 누구세요?》

처녀의 목소리는 은방울을 굴리는듯 하였다.

《나는 이 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 가는 총각입니다.》

《그래요?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군요. 눈 부시게 반짝이는 바다, 날아 예는 갈매기, 저 백사장...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살면 언제나 즐겁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답니다.》

《슬프다니요? 무슨 일로 슬프겠어요.》

처녀는 의아해서 수동이를 쳐다보았다.

수동이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눈물속에 살아 가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 주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처녀의 두눈에는 눈물이 가랑가랑 어렸다.

《그렇군요. 정말 미안해요. 슬픈 이야기를 꺼내게 해서... 오늘은 이 바다가에서 저와 함께 즐기는게 어때요?》

총각의 가슴 아픈 추억을 불러 낸것이 몹시 미안한듯 처녀는 방긋 웃어 보이고는 백사장으로 달려 갔다.

수동이는 저도 모르게 처녀를 따랐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줄 나는 미처 몰랐어요. 래일부터 매일 놀러 오겠어요.》

《그럼 우리 아침마다 여기서 만납시다.》

처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은 백사장에서 모래성도 쌓고 곱게 생긴 조약돌과 조개껍질도 주으며 시간 가는줄을 몰랐다.

그러는 동안에 처녀와 수동이 사이에는 남몰래 사랑이 움텄다.

어느덧 하루해가 저물었다. 이젠 집으로 돌아 갈 시간이 되었다.

수동이는 처녀와 헤어 진 다음에야 알아 누운 어머니를 위해 정어리를 잡으러 나왔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어쩌면 좋아?》

수동이는 정어리를 잡아 가지고 오기를 손 꼽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생각에 바다물로 뛰여 들어 그물을 던졌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물에는 고기 한마리 걸리지 않았다.

빈 그물을 돌려 메고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 오는 수동이의 발걸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물었다.

《수동아, 정어리를 얼마나 잡았느냐?》

《어머니,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정어리가 잡히지 않누 만요?》

하고 수동이는 난생처음으로 어머니앞에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래, 괜히 고생만 했구나!》

어머니는 찻찻 혀를 차고 돌아 누웠다. 그러나 수동이는 그 다음날도 공주와 노느라고 정어리를 잡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또 빈손으로 돌아 온것을 보고 서운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요새는 바다에 정어리가 없는 모양이구나. 괜히 고생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만 두어라.》

수동은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래일은 꼭 정어리를 잡아 오겠어요.》

다음날 아침 수동이는 또 그물을 메고 바다가로 나갔다.

처녀는 벌써 너럭바위에 앉아 수동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동이는 처녀를 보는 순간 정어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또다시 까맣게 잊어 버렸다.

온 종일 처녀와 놀던 수동이는 해가 저서야 집으로 가려고 일어 났다.

그러던 수동은 《아니?》 하고 그 자리에 굳어 졌다. 오늘도 또 정어리를 못 잡았던것이다.

수동이는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다. 오늘까지 빈손으로 들어 간다면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그렇다고 어둠이 깔린 바다에 나가 정어리를 잡을수도 없었다.

수동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이상한 눈치를 찬 처녀가 물었다.

《여보세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것 같은데 숨김없이 어서 말씀하세요.》

수동이는 할수없이 자기의 아픈 마음을 털어 놓았다.

《저에게는 앓아 누운 어머니가 계신답니다. 정어리를 잡숫고 싶다 하시기에 며칠째 그물을 메고 나왔는데 당신과 놀기만 하였구려. 어떻게 오늘까지 빈손으로 들어 가겠습니까? 나는 어머니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수동이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걸 왜 지금에야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다정해 질수록 어머님을 더 잘 모셔야 한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정어리를 잡아 오겠어요.》

처녀는 눈 깜박할 사이에 파도 사나운 바다속으로 사라 졌다.

수동이는 너무도 희한하여 홀린듯 처녀가 사라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후에 바다물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더니 처녀가 팔뚝만 한 정어리를 한다래끼 잡아 들고 나왔다.

《자, 이젠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 가자요.》

수동이는 이러한 처녀의 두손을 부여 잡고 물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인데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 가 정어리를 잡아 올수 있습니까?》

처녀는 그때에야 할수 없는듯 생글생글 웃으며 입을 열 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룡왕의 막내공주입니다.》

《아, 공주!》

너무도 놀라와 수동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보세요, 어머니가 몹시 기다리실거예요. 나는 어머님을 생각하는 당신의 그 효성에 감동되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룡궁에 들어 가지 않고 당신과 함께 어머니를 잘 돌봐 드리겠어요.》

《공주, 정말 고맙소!》

수동이는 즐거운 기분으로 공주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 갔다.

《어머니, 오늘은 정어리를 잡아 왔어요.》

《그래, 네가 정말 수고를 했구나!》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 나 앉았다.

그러던 어머니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떠오르는 보름달같이 아름다운 한 처녀가 방안으로 들어 오더니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것이였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 처녀는 룡왕의 막내공주입니다. 정어리도 이 처녀가 잡아 주었어요.》

수동이가 이렇게 말하자 공주는 어머니의 여윈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저는 오늘부터 룡궁에 들어 가지 않고 아드님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공주, 그게 정말이면 얼마나 기쁘겠소!》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공주의 보드라운 손등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공주는 곧 부엌으로 내려 가 정어리를 맛 있게 지져서 어머니에게 대접하였다.

그날부터 공주와 수동이는 다정한 부부가 되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였다.

그 보람이 있어 어머니의 병은 씻은듯이 나왔다.

한숨소리만 높던 수동이네 집에서는 날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수동이네 안해에게 말하였다.

《여보, 물고기를 가지고 물에 나가 소고기를 바꿔 오겠소. 어머니의 병이 나았으니 이젠 몸을 추세워야 하지 않겠소?》

《알겠어요. 그간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터이니 걱정 마시고 조심해서 다녀 오세요.》

수동이는 곧 쪽배를 타고 섬을 떠났다.

공주는 쪽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손 저어 주었다.

다음날부터 공주는 어머니에게 밥상을 정성껏 차려 드리고는 온 종일 바다가에 나가 수동이를 기다리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갑자기 수평선너머에서 검은구름이 몰려 오더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사나와 졌다. 그러나 공주는 집으로 들어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온밤 바람은 멎지 않고 싸싸 울부짖었다. 공주는 초조한 마음으로 새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으나 수동이는 돌아 오지 않았다.

한낮이 되어서야 바람은 잦고 날이 개이었다. 사흘만 있으면 오겠다던 수동이는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돌아 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님이여, 소고기를 가지고 빨리 돌아 오세요. 어머니가 건강해 지도록 어서 대접하자요.》

애 타게 부르짖는 공주의 목소리는 저 멀리 물으로 울려 갔다.

열흘이 가고 보름이 가도 수동이는 돌아 오지 않았다.

근심에 싸인 공주는 입맛까지 잃어 음식을 입에 댈수 없었고 잠도 잊었다. 공주의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 졌다. 그러나 공주는 바다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바다가에 찾아 나와 아무리 달래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이제는 앓아 있을 힘도 공주에게는 없었다. 공주는 수동이네 소고기를 구해 가지고 돌아 오다가 파도를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수동이 허락도 없이 자기의 딸과 결혼한것을 알게 된 룡왕이 크게 노하여 파도를 일으켰던것이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바다가에서 밤을 새우고도 어머니의 아침밥만은 꼭꼭 맛 있게 지어 놓고 나가던 공주가 집으로 돌아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다가로 나간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자리에 굳어 지고 말았다.

얼굴이 종이장같이 하얀 공주가 너럭바위우에 쓰러져 있었던것이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달려 간 어머니는

《얘야 어서 일어 나가라 어서!》

하며 공주를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대답이 없었다.

공주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게 웬일이냐? 수동이를 못 보고 네가 가다니. 얘야, 어서 일어 나가라 어서...》

공주의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두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 내렸다.

하많은 밤을 지새우며 수동이를 안타깝게 기다리던 룡왕의 막내공주는 불쌍하게도 죽고 말았다.

어머니는 공주의 시체를 안아다가 양지바른 기슭에 고이 묻어 주었다.

그 다음날 아침.

공주의 무덤우에는 이름 모를 빨간 꽃이 바다를 향해 곱게 피어 있었다. 그것은 남편을 기다리던 공주의 아릿다운 모습과 같았다.

그때로부터 바다가에는 어데라 없이 빨간 꽃이 수없이 피어 났다.

마치도 공주가 수동이를 기다리듯이 봄에서 가을이 기울 때까지 바다가 백사장에 붉게 붉게 피어 있는 꽃, 그 꽃은 다름아닌 아름답고 향기로운 해당화이다.